

# 항저우 모델: 배경, 핵심 내용 및 전망

이중희

국립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 항저우 모델의 부상과 배경

2025년 1월 항저우(杭州)의 한 민간 펀드인 환팡량화(幻方量化)의 스타트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딥시크(DeepSeek)를 내놓음으로써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딥시크를 포함한 항저우의 6개 유망기업인 육소룡(六小龙)이 항저우 열풍을 일으켰다. 육소룡은 딥시크, 유니트리(宇树科技), 브레인코(强脑科技), 매니코어(群核科技), 딥로보틱스(云深处科技) 및 게임사이언스(游戏科学)를 지칭한다.<sup>1)</sup>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항저우와 다른 경쟁 도시 간에 비교 분석과 평가가 격화되었다.<sup>2)</sup> 중국의 도시 간 경쟁은 “충성 없는 전쟁”이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항저우 열풍은 더욱 고조되었고 급기야 항저우는 하나의 모델로 격상되었다.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지역혁신 모델 중에서 가장 반향과 관심을 일으킨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1)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육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255쪽.

2)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육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항저우 모델은 “문화 유전자, 제도 혁신, 정보 효율성, 기술 혁명, 글로벌 좌표, 자본 생태계, 기술 경쟁 및 모델의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 사회시스템”이다.<sup>3)</sup> 이 정의에서 보듯이 항저우 모델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이 글은 간략하게 항저우 모델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 항저우 모델의 삼위일체

항저우 모델의 담론은 올해(2025년) 초 인터넷 기사에서 형성되다가 5월경에 출판된 세 권의 책에서 핵심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됐다.<sup>4)</sup> 항저우 모델의 내용은 상당히 풍부해서 짧은 글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글은 전술한 세 권의 저서와 인터넷 기사를 토대로 항저우 모델의 핵심적 내용을 1) 유능한 정부(有为政府), 2) 유효한 시장(有效市场) 그리고 3) 유기적 사회(有机社会)로 나누어 살펴본다. 핵심은 유능한 정부-유효한 시장-유기적 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결합해서 처음에는 “항저우 현상”로 나타났지만 “현상”으로 그치지않고 점차 하나의 모델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항저우 모델은 “정부 주도 + 시장 주도 + 사회 협력”의 삼위일체 모델이다.<sup>5)</sup> 인터넷, 플랫폼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등장한 기존의 지역혁신 모델로는 미국에서는

##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핵심 이슈와 시사점



실리콘밸리 모델이 있고, 중국에서는 선전(深圳) 모델, 베이징 모델, 허페이(合肥) 모델 등이 있다. 삼위일체가 항저우 모델을 기존의 지역 혁신모델과 가장 구분 짓는 특성이다.<sup>6)</sup>

### 유능한 정부(有为政府)

필자의 생각으로 “有为政府”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실속 있는 일을 하는 정부”이지만 “유능한 정부”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여기서는 “유능한 정부”라는 간략한 표현을 사용한다. 유능한 정부는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위해서 실속 있는 일을 하는데 비중을 둔다. 또 정부와 시장은 균형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sup>7)</sup> 또한 항저우의 유기적 사회가 정부의 유능함을 제고한다.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항저우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3) 千龙网, 「研究」杭州模式: 数字经济枢纽崛起的引擎, 2025-06-06

4) 曹钟雄, 郑宇劼, <科创与中国: 为什么是杭州, 如何不仅是杭州>, 中信出版社, 2025; 刘典, 胡宇东, ,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周国辉, <有为与有效: 解码“杭州六小龙”背后的科创生态>, 中信出版社, 2025

5) 职场, 下一本 | 不是硅谷, 胜似硅谷: 解码中国杭州的“生态型创新”模式, 2025-5-11; 이종희, 「항저우 모델과 6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6)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215-251쪽

7)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99쪽

같다. 즉 항저우 정부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정책지원과 자원 지원 등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이다.<sup>8)</sup> 첫째, 항저우 정부는 2000년부터 항저우 외부의 지역을 항저우로 편입시켜 이후 항저우의 주요 도심 지역(主城区)을 크게 확대했다. 이때 항저우 정부는 현재 항저우의 주요 도심 지역인 6개 구(区)에 알리바바(阿里巴巴) 등 주요 빅테크와 육소롱, 저장대학(浙江大学) 등이 소재하는 환경을 마련했다.<sup>9)</sup> 둘째, 항저우 정부의 적극적인 인재, 기업 유치, 세금 혜택 등의 정책이다. 예컨대 브레인코의 창업자인 한비청(韩璧丞)이 미국에서 항저우로 회사를 옮긴 이유는 항저우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이었다.<sup>10)</sup> 셋째, 항저우 정부가 조성한 국유 펀드의 역할이 컸다. 2018년 설립된 항저우시 국유자본투자운영유한공사는 각각 천 억 위안 규모의 모펀드인 항저우 과학기술 혁신 펀드(杭州科创基金)와 항저우 혁신 펀드(杭州创新基金)를 운영했다.<sup>11)</sup> 6소롱 가운데 딥로보틱스, 유니트리, 브레인코 및 딥시크의 성장에는 이 국유펀드의 투자가 있었던 반면, 딥시크는 동시에 후술할 민간자본인 환팡량화의 투자였다.<sup>12)</sup> 넷째, 항저우시 정부의 상급기관인 저장성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다. 2003년 시작한 저

장성 정부의 디지털 저장(数字浙江) 전략이 항저우 모델의 발전 과정에 기여했다.<sup>13)</sup> 아울러 저장성은 다른 지역보다 〈민영경제발전조례〉의 제정에 앞섰다. 2025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의 많은 내용은 2020년에 중국 최초로 제정된 〈저장성민영기업발전촉진조례(浙江省民营企业发展促进条例)〉에서 참고했다.<sup>14)</sup>

### 유효한 시장(有效市场)

항저우 모델에서 시장은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시장은 정부와 균형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자금시장과 민영기업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민간 펀드의 역할이다. 국유 펀드와 함께 시장에 존재하는 민간 자금이 항저우의 기업이 창업하고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저장 상인(浙商), 알리바바 및 저장대 동문과 연관된 민간 자금의 역할이 컸다.<sup>15)</sup>

다음으로 항저우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어느 도시보다 컸다.<sup>16)</sup> 대표적으로 항저우의 알리바바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중국

8) 观察者网, 心智观察所独家对话 | 胡宇东: 给“杭州模式”降温? 中国目前需要“不服来战”的城市竞争氛围, 2025-04-25; 曹钟雄, 郑宇劼, <科创与中国: 为什么是杭州, 如何不仅是杭州>, 中信出版社, 2025, 113-136쪽

9) 百度百科, 杭州市

10)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6소롱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11) 百度百科, 杭州市国有资本投资运营有限公司

12) 全小业, 浙商崛起! 从“浙江村”到“杭州六小龙”, 2025-03-21; 曹钟雄, 郑宇劼, <科创与中国: 为什么是杭州, 如何不仅是杭州>, 中信出版社, 2025, 91쪽

13)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6소롱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250쪽

14) 钛媒体APP, “企业家之城”: 解码杭州的创新方程式, 2025-03-11

15) 曹钟雄, 郑宇劼, <科创与中国: 为什么是杭州, 如何不仅是杭州>, 中信出版社, 2025, 99-107쪽

16) 周国辉, <有为与有效: 解码“杭州六小龙”背后的科创生态>, 中信出版社, 2025, 93-101쪽

500대 민영기업‘ 가운데 1선 도시(선전, 상하이 등)를 제치고 항저우의 수량이 가장 많다.<sup>17)</sup> 항저우의 민영기업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항저우 모델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한다.

### 유기적 사회(有机社会)

항저우는 다른 도시보다 사회의 유기적 특성이 더욱 강했다. 항저우 사회의 이러한 유기성은 상당 부분 항저우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유기적 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유기적 사회는 상당히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만 보자. 우선 항저우 사회의 공감대나 가치관은 정부와 시장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협력적이도록 한다. 정부 정책과 시장기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사회의 유기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항저우 사회의 가치 공감대(价值共识)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치 공감대로는 장기 주의, 혁신지향, 지역을 뛰어넘은 협력 의식, 세대 간 융합, 포용성, 개방성, 중상적 분위기 등이 있다.<sup>18)</sup>

예컨대 중상적 분위기는 창업을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장기주의적 상업을 도모하게 한다. 단적인 사례가 저장 상인이다.<sup>19)</sup>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마윈(马云)이 저장 상인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인물

로 평가받고 있다. 또 포용 개방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포용성과 개방성은 항저우를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시켰고 도시의 청년 흡인력을 제고했다. 뿐만 아니라 포용 개방의 문화는 도시의 혁신 활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화는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제고했다.<sup>20)</sup> 포용 개방의 문화는 해외귀국파에 대한 개방과 수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술한 브레인코의 한비청도 미국에서 브레인코를 창업한 후 항저우로 옮긴 경우이다.<sup>21)</sup>

### 맺음말

항저우 모델은 “일종의 신흥 지방 발전 패러다임”이다. 이 모델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 항저우가 달성한 성과에 있지 않고 지속적인 반성과 체계적인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sup>22)</sup> 항저우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알리바바 등 빅테크에서 시작해서 육소룡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현재 그 주변에 6천 개의 소룡(小龙)이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향후 항저우가 모델, 더 나아가 패러다임이라 표현할 정도로 성과를 지속해 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능력을 보일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한다.

17)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6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263-4쪽

18)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127-166쪽; 中信出版集团, 政府变成企业 “陪跑员”? 杭州在实践一种很新的模式, 2025-06-16

19)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52-55쪽

20)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86쪽

21)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81쪽; 周国辉, <有为与有效: 解码“杭州六小龙”背后的科创生态>, 中信出版社, 2025, 38쪽;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6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256쪽

22)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214쪽

한국 내에서도 지난 1월부터 덩시크의 부상과 함께 항저우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전에 중국에서 등장했던 도시 모델은 중국식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연구되었지만, 항저우 모델은 한국의 기술혁신과 지역혁신을 위한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항저우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혁신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등장하는 중국의 새로운 모델은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중희, 「항저우 모델과 6소룡 연구」, 『중국학논총』 86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5년 6월.
- 中信出版集团, 政府变成企业 “陪跑员” ? 杭州在实践一种很新的模式, 2025-06-16 政府变成企业 “陪跑员” ? 杭州在实践一种很新的模式(검색일, 2025.6.18)
- 钛媒体APP, “企业家之城” : 解码杭州的创新方程式, 2025-03-11 “企业家之城” : 解码杭州的创新方程式(검색일, 2025.6.8)
- 职场, 下一本 | 不是硅谷, 胜似硅谷: 解码中国杭州的 “生态型创新” 模式, 2025-5-11 下一本 | 不是硅谷, 胜似硅谷: 解码中国杭州的 “生态型创新” 模式(검색일, 2025.6.8)
- 千龙网, 「研究」 杭州模式: 数字经济枢纽崛起的引擎, 2025-06-06 「研究」 杭州模式: 数字经济枢纽崛起的引擎(검색일, 2025.6.8.)
- 全小业, 浙商崛起! 从 “浙江村” 到 “杭州六小龙” , 2025-03-21 浙商崛起! 从 “浙江村” 到 “杭州六小龙” (검색일, 2025.6.6.)
- 百度百科, 杭州市国有资本投资运营有限公司 杭州市国有资本投资运营有限公司\_百度百科(검색일, 2025.5.23.)
- 观察者网, 心智观察所独家对话 | 胡宇东: 给 “杭州模式” 降温? 中国目前需要 “不服来战” 的城市竞争氛围, 2025-04-25 心智观察所独家对话 | 胡宇东: 给 “杭州模式” 降温? 中国目前需要 “不服来战” 的城市竞争氛围(검색일, 2025.5.23.)
- 百度百科, 杭州市 杭州市 (中国浙江省辖地级市、省会) \_百度百科(검색일, 2025.6.6.)
- 曹钟雄, 郑宇劫, <科创与中国: 为什么是杭州, 如何不仅是杭州>, 中信出版社, 2025
- 刘典, 胡宇东, <杭州模式: DeepSeek与中国算谷>, 中信出版社, 2025
- 周国辉, <有为与有效: 解码 “杭州六小龙” 背后的科创生态>, 中信出版社, 2025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